

300-5-121. 신문조서(權榮台 외 33명 치안유지법 위반) 3

■ 權榮台 외 33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기록 수록(문서 300-5-119부터 계속)

- 1934년 6월 5일 森本長市の 證人 신문조사부터 기록되어 있다.
- 鄭泰植은 1933년 京城帝大 法文學部를 졸업하고 동 대학 법문학부 助手로 근무중 좌익 문헌을 탐독, 공산주의 사상을 갖게 되었으며, 三宅 教授의 영향하에 李載裕와 같이 공산주의 실천운동에 노력하였다. 李明新도 京城帝大 法文學部 졸업 후 동 학부 助手가 되어 社會科學 연구에 몰두했고, 공산주의사상을 지니고 三宅 교수의 영향하에 공산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韓成澤은 京城法專 시절 普成專門의 安秉潤과 交友하며 공산운동에 몰두한 李載裕 등의 설득으로 공산주의에 공명, 실천운동을 하였다. 金大容은 韓六洪과 交友하며 공산주의 운동에 공명, 실천운동에 참가했다. 韓六洪은 京城法專 在學中 社會科學을 연구하며 좌익문헌을 탐독, 공산주의 사상을 지니고 공산주의 실천운동을 하였다.
- 이 사건 관련자들은 공산주의이론 연구, 交友 또는 會同·지시 등을 통하여 여러 공산주의 실천운동을 하였다. 자세한 기록이 경찰의견서에 수록되어 있다.
- 1934년 6월 6일 金澤洙·米之才一의 증인신문이 있었고, 6월 16일 徐升錫·金俊培·金松經·李萬昌·金載榮·金洪鎮 등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 17일 權榮台 2회, 吳富田·韓六洪 2회, 吳南根 2회의 피의자 신문조사와 差押이 집행되었다. 18일 沈用雲의 聽取書가 作成되었고, 同日 李昌吉의 피의자 신문조사와 宋在旭의 청취서가 작성되었다. 權五相의 증인신문이 있었고, 李鍾喆·金夏增 2회, 權寧奎·鄭泰植 2회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19일 徐載壽·崔愚植의 증인 신문이 있었고, 金鎮煥·卓在弼 2회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 1934년 6월 20일부터 2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는데 崔用達·尹完模·李元鳳·安錫錫 등에게 실시되었고, 金基東의 청취서 작성, 成燦文의 증인신문이 있었다. 21일 金喜鎮 2회, 高宗圭 1회, 崔慶玉 2회, 崔容達 3회의 피의자 신문조사와 李丙禧에 대한 청취조사가 있었다, 22일 姜晦求 2회, 朴文奎 2회, 金普成 2회, 權泰錫 1회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 金斗用的 청취서가 작성되었다. 23일 白潤赫 2회, 安鍾瑞 3회, 金月玉 2회, 權榮台 3회, 25일 鄭泰植 3회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 6월 29일 金普成 4회, 權榮台 4회, 金月玉 3회, 韓六洪 3회, 韓成澤 2회, 金大容 2회, 安鍾瑞 4회, 朴鼎斗 2회, 崔慶玉 3회, 高宗奎 3회, 金喜鎮 3회, 구류처분 吳南根 2회, 徐升錫 2회, 權泰錫 2회, 金鍾煥 3회, 李元鳳 3회, 鄭泰植 4회, 李明新 3회, 崔容達 4회, 朴文圭 3회, 安秉潤 2회, 白潤赫 3회, 姜晦求 3회의 피의자 신문 조사가 있었으며, 金喜鎮 이하 12명은 구류처분되었다.
- 위 피의자 權榮台 외 23명의 소행조사가 있었고, 鄭泰植 외 53명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각자의 활동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